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0, pp.241-272
<https://doi.org/10.29212/mh.2019..110.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와 운용

— 무신란(戊申亂) 당시 경상도 반란군 방어를 중심으로 —

문경득*

1. 서론
2.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
 - 가. 지방관의 군사지휘체계
 - 나. 지방군의 규모
3. 반란 대응체계의 실제 운용 양상
 - 가. 반란 인지와 초기 대응
 - 나. 병력 집결과 팔랑치 수비
4. 결론 : 전라도 지역 반란 대응체계의 문제

1. 서론

무신란(戊申亂)은 영조 4년(1728)에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영조의 왕위계승 정통성을 부정하며 일어났다. 이에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을 사로도순무사(四路都巡撫使)로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임명하고 중앙군을 파견하여 반란을 토벌하고자 했고, 지역의 지방관도 각자 병력을 소집해 반란에 대응했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창의(倡義)하여 반란 진압을 돕고자 했다. 그 결과 반란군은 초반에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토벌당하면서 무신란은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무신란 당시 반란 대응에 관한 연구는 무신란 관련 연구와 군제사 관련 연구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다. 무신란 관련 연구에서는 반란과 더불어 대응도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각각 중앙에서 파견한 도순무사 오명항이 지휘한 중앙군의 활동은 물론 각 지방의 지방관이 동원한 관군과 자발적으로 토벌에 가담한 ‘의병’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¹⁾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은 대체로 소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경상도 반란군이 전라도로 진출하려 하자 전라도 운봉영장(雲峯營將) 손명대(孫命大)나 무주의

1) 기존 무신란 연구 중 토벌과 대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우성, 「지방토호 대 중앙권력층의 투쟁」, 『경상남도지』 상, 1959, 726~727쪽; 이상옥, 「영조 무신란의 연구」, 『우석사학』 2, 1969;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 『부대사학』 2, 1971, 75~77쪽; 오갑균,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21, 1977, 90~96쪽;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립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1986, 65~66쪽; 이종범,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조선후기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태학사, 2003에서 재인용), 259~261쪽; 정석중, 「영조 무신란의 진행과 그 성격」,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5, 139~148쪽, 152~158쪽; 이종범,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한국사』 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203~204쪽; 이영춘, 「정치적 변란인가 민중의 반란인가 - 영조 무신란」,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 조선시대의 민란과 변란들』, 가람기획, 2000, 122~123쪽; 고수연, 「청주지역 영조 무신란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178~179쪽;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50~81쪽, 116~120쪽;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 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 17, 2010; 이육,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 - 무신란과 모반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49~55쪽, 67~70쪽;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 - 탕평의 길을 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47~54쪽, 58~70쪽, 98~103쪽; 허태용, 「1728년 무신란의 진압과 『감란록』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2014, 110~111쪽.

지방관이 병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는 내용만 간략히 언급된다.²⁾ 그러나 전라도 지역 무신란을 다룬 연구 중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의 「무신의적(戊申義蹟)」을 활용한 연구에서 전주성 수비와 경상도 반란군 방어 등의 대응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였다.³⁾

군사사의 관점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반란 대응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연구되었다. 즉, 도순무사 오명항이 이끈 중앙군의 규모와 활동을 검토하거나,⁴⁾ 영장제의 관점에서 지방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검토한 연구 등이 있다.⁵⁾ 하지만 역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에 관해서는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외에는 무신란 이후 화약 공납체제의 변화 양상이나⁶⁾ 지방군제의 정비를 다룬 내용으로⁷⁾ 무신란 당시의 토벌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신란 당시 일정 지역을 잠깐이라도 점거하는 데 성공한 경기·충청도와 경상도의 반란군과 다르게 전라도 지역에서는 시도 단계에서 실패하여 대응할 반란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와 전주영장 이경지(李慶祉)가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은 탓에 연구자들은 이들을 비롯한 지방관의 대응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2)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을 거론한 무신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우성, 앞의 책, 727쪽; 이상옥, 앞의 논문, 13쪽; 이원균, 앞의 논문, 75~77쪽; 오갑균, 앞의 논문, 84~88쪽; 정석중, 앞의 책, 152~153쪽; 고성훈, 앞의 책, 67~68쪽; 장필기, 앞의 책, 63~64쪽; 고수연, 「조선 영조대 무신란의 실패 원인」, 『한국사연구』 170, 2015, 239쪽.

3) 유한선, 「영조 4년 戊申亂과 전라도 의병」, 『전북사학』 39, 2011, 144~154쪽; 고수연, 「1728년 호남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 담론』 60, 2011, 50~56쪽.

4)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108~109쪽

5)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211~214쪽.

6) 유승주, 「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研究(下) -三南月課火藥契人の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79, 1978.

7)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195~204쪽; 서태원, 앞의 책, 215~216쪽.

않았다. 특히 『호남절의록』을 근거로 전라도 지역의 무신란을 다룬 연구에서는 전주성 수비의 주체로 아예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무신란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는 비록 시도에 그쳤지만, 박필현이 태인의 관군을 거느리고 전주성에 입성하려 했고, 경상도 반란군이 팔랑치(八良峙)를 넘어 전라도로 진입하려고 했다. 전라도 지방관이 이러한 반란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무신별등록(戊申別騰錄)』 등에 남아있다.⁸⁾ 또한, 일부 연구에서 인용한 『호남절의록』은 후대에 민간인이 편찬한 자료로, 당대에 국가에서 편찬한 『무신역옥추안(戊申逆獄推案)』이나 『무신별등록』과 다른 내용이 많다.⁹⁾ 따라서 전라도 지역에서 무신란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응에 관한 연구는 정치사적 측면에서 1728년 무신란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재현하는데 필요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초에 지역의 군사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주제이다. 이 중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지방관의 대응은 기존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으므로,¹⁰⁾ 본 논문에서

8) 『무신별등록』은 총 5권으로 무신란과 관련된 보고 등의 기록을 모은 등록(騰錄)이다. 1728~29년에 작성된 원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하여 『영조무신별등록(英祖戊申別騰錄)』이라는 이름으로 『각사등록』 67~69, 1993에 수록하였다. 이외에 1910년대에 필사한 판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에서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책 제목 중 ‘영조(英祖)’라는 시호는 고종 27년(1890)에 추증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본의 제목을 존중하여 『무신별등록』으로 표기하였다.

9)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호남절의록』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연구가 있다(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다만 이러한 사료적 한계와 별개로 전라감사 정사효나 전주영장 이경지, 운봉영장 손명대 등 주요 전라도 지방관이 실제로 반란에 대응한 주체인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논증이 필요하다. 『호남절의록』 「무신의적」에서는 전주성 수비의 주체에 대해 전라감사 정사효와 전주영장 이경지가 반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좌수 오진형(吳震亨), 천총 이주연(李周衍), 이기만(李起萬) 등을 주목해서 거론하고 있다. 경상도 반란군을 막아낸 주체에 대해서도 운봉영장 손명대 이외에 여러 민간인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원종공신 책봉과 관련된 공식 기록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아 실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반란 대응의 주체 문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는 군제사의 관점에서 경상도 반란군의 전라도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전라도 지역 지방군의 지휘체계와 병력 동원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제도와 군사사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무신란 당시 지방관의 보고를 수록한 『무신별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지방관들이 경상도 반란군을 맞이해 대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2.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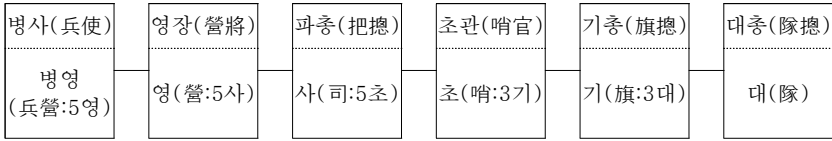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과 군사 등등 다방면에 걸친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였다. 그렇기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최일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의 지방통치와 군사사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전라도 지역의 군사지휘체계와 병력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가. 지방관의 군사지휘체계

조선시대 군사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였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영장제(營將制)의 시행과 속오군(束伍軍)의 편성이다. 이러한 지방군제에서 지휘체계와 편제는 다음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¹¹⁾

10) 문경득,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63~186쪽 참조.

<표 1> 속오군의 편제와 지휘계통



즉 무신란 당시의 조선후기 지방군은 병사를 정점으로 하는 지휘 체계 아래에 속오군 편제의 기본이 되는 진영(鎭營)이 설치되었고 그 책임자로 영장이 있었다. 특히 무신(武臣)인 전임영장은 대음을 포함한 소읍의 군사지휘권을 장악하여, 평상시에는 속오군을 조련하고 비상시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출전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¹²⁾

그러나 이처럼 지방군의 주력이 병사와 영장을 중심으로 하는 속오군으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지방관의 군사지휘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형태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군사조련은 영장이 담당하고 군사행정은 수령이 분담하는 방식이었지만,¹³⁾ 유사시의 군사지휘권은 여전히 수령에게 있었다. 이는 여전히 수령들이 발병부(發兵符)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각 읍의 병마 책임자의 직함을 겸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수령들이 유사시에 군대를 지휘하여 방어하는 진관체제를 기초로 지역방어체계가 운영되었다.¹⁴⁾ 실제로 무신란 당시에도 안성군수 민제장(閔濟章), 진위현령 조동빈(趙東彬),¹⁵⁾ 양주목사 유척기(兪拓基), 춘천부사 정도원(鄭道元)¹⁶⁾ 등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정한 사실도 확인된다.¹⁷⁾

11) 송양섭, 「지방군의 개편과 지역방어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군사연구소, 2012, 3쪽.
 12) 송양섭, 앞의 책, 4쪽.
 13) 차문섭, 「조선후기의 영장」,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 출판부, 1977, 229~233쪽.
 14) 이희권, 「조선후기 수령의 통치행정기능」,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137쪽.
 15) 『영조실록』 4년 3월 22일 임신.
 16) 『영조실록』 4년 3월 24일 갑술.
 17) 이희권, 앞의 책, 137~138쪽.

또한 감사(관찰사) 역시 한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 병사와 수사를 겸하면서, 조선전기 이래 자신의 발병부 우부(右符)와 함께 도내 각 진(鎭) 발병부의 좌부(左符)를 가지고 있어 국왕의 명령을 받아 도내의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었다.¹⁸⁾ 그러므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 병사, 영장, 수령 사이의 지휘체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는 명목상 병사를 겸하는 도내 최고 지휘관이었지만, 병사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병부 우부와 함께 휘하 영장의 발병부, 각 읍 수령 발병부의 좌부를 가지고 있었다.¹⁹⁾ 이는 감사와 병사 모두 속오군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에 명령체계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을묘왜란 이후 감사가 순찰사를 겸하면서 상하관계를 확립하였으므로,²⁰⁾ 감사가 병사를 지휘·감독하는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사는 도정(道政)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이었으므로 전적으로 군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또한 속오군은 병사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조직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병사가 지방의 육군에 대한 군사행정과 지휘를 총괄하는 직책이었다. 그렇기에 제도적인 상하관계와 별개로 병사는 군무에 관해서는 감사와 거의 대등한 지위와 권세를 유지했다.²²⁾

다만 전라병영이 남부 해안가에 치우친 강진(康津)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겸병사(兼兵使)로서 병사의 업무 일부인 마병도시(馬兵都試)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할 사례가 있다.²³⁾ 그러므로 비록 병사가 실질적인 지휘자라고 해도 거리상의 한계로 전라도 전체를 바

18) 이회권, 「조선후기 관찰사와 그 통치기능」, 위의 책, 63쪽.

19) 이회권, 위의 책, 65, 121쪽.

20) 『명종실록』 10년 10월 18일 기묘.

21) 이회권, 앞의 책, 67~69쪽;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32쪽.

22) 유동호, 앞의 논문, 132~134쪽.

23) 송양섭, 「조선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계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52, 2013, 39쪽.

로 지휘하기가 어려우므로, 유사시에는 겸병사인 감사가 전주감영 인근 고을의 지휘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영장은 병사의 지휘를 받아 속오군을 조련하고 비상시 속오군을 지휘하여 대적하는 직책이었다. 특히 조선후기 지방군제는 진관체제에서 거진수령(巨鎭守令)의 역할을 영장이 대체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군무에 관해서 속읍의 수령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²⁴⁾ 다만 현종 1년(1660) 이전에는 병부의 왼쪽을 가진 감사와 병사의 동의 없이 군사를 동원할 수 없었다. 이에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영장도 좌우측 병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속읍 수령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 좌부를 갖게 되었다.²⁵⁾

따라서 18세기 초 무신란 당시에는 기본적으로는 감사-병사-영장-수령의 지휘체계가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사가 최상위로 병사를 감독하고, 병사가 지역의 육군을 총지휘하며, 그 휘하에서 영장이 속오군을 이끌면서 속읍 수령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감사와 병사, 영장이 모두 유사시 지방군을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를 가지고 있었고, 수령도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었으므로 지휘체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즉, 서로 다른 명령이 수령에게 내려올 경우,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군무에 있어서 감사가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사의 지휘권도 감사와 대등한 측면이 있었고, 영장이 수령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 하더라도 수령 역시 군사지휘권이 있으므로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었다.

나. 지방군의 규모

다음으로 무신란 당시 전라도의 감사와 병사, 영장, 수령이 각각

24)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영장제를 중심으로』, 해안, 1999, 83, 94~97쪽.

25) 『현종실록』 1년 6월 5일 무자.

지휘할 수 있는 병력에 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이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첫 번째는 사료의 문제이다. 우선 무신란 이후 속오군에 대한 정비 노력으로 「속오절목(束伍節目)」을 마련하거나,²⁶⁾ 이노작대(吏奴作隊)가 공식화되는 등 여러 조치가 시행되었다.²⁷⁾ 이로 인해 현존하는 기록들은 대체로 무신란 이후의 내용으로 그 이전의 지방군제를 파악하기 어렵다.²⁸⁾ 또한 『무신별등록』 등의 기록에서도 무신란 당시 감영의 아병

26) 「속오절목」의 제정과 속오군의 운영에 관해서는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천」, 앞의 책, 195~199쪽, 204~212쪽 참조.

27) 김우철, 앞의 책, 199~204쪽; 송양섭, 앞의 책, 108~115쪽

28) 예를 들어, 전라감사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규모에 관해 영조 40년(1770)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서는, 검병사로서 회하에 중군 1명, 별장 1명, 천총 3명, 과총 6명, 초관 42명, 지구관 2명, 기패관 161명, 별군관 200명, 마병 2초(보 444명), 아병(牙兵) 35초, 표하군(標下軍) 683명, 당보군(塘報軍) 96명, 수솔군(隨率軍) 225명, 치중군(輜重軍) 380명을 거느린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군역 관련 내용은 이후 계속 수정되어 편찬되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반면 편찬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완영병제총록(完營兵制總錄)』에서는 아병의 규모가 조금 적은 30초라고 되어 있다(『완영병제총록』 전라감영; 유동호·이석린, 『조선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2014, 225쪽). 이러한 아병은 전라감영 인근 29개 지역을 속읍으로 설정하여 인원을 충원하였다(『군국총목』, 전라도; 송양섭, 앞의 책, 108쪽; 유동호·이석린, 앞의 논문, 225쪽).

전라병사의 경우, 전임병사로 중군 1명(우후), 천총 3명, 과총 9명, 초관 45명, 지구관 17명, 기패관 88명, 군관 230명, 아병(=친병) 66초, 표하군 1,200명, 수솔군 90명, 수용군 700명이 배속되어 있었다(『동국문헌비고』 54권, 병고3; 『증보문헌비고』 118권, 병고 10; 송양섭, 앞의 책, 46~47쪽). 군역 자료를 중심으로 병력 규모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743년 『양역총수(良役總數)』에서는 병영에 속한 친병의 규모는 군관과 병사를 모두 합쳐 10,309명이라고 기록되고 있다(『양역총수』; 송양섭, 앞의 논문, 2013, 42쪽. <표 4>). 이러한 군역의 규모는 1794년의 『군국총목(軍國總牧)』, 1895년 『병영영지』까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완영병제총록』에서는 친병의 규모가 다소 적은 45초로 군관과 병사를 모두 합쳐 7,046명이며, 이중 군인 6,944명은 수포군으로 운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완영병제총록』 병영; 유동호, 앞의 논문, 91~92쪽).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문헌비고』나 『양역총수』 등의 17세기 후반의 기록부터 19세기 말의 기록까지 일정한 액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완영병제총록』에 수록된 아병과 친병 규모는 감영이 5초, 병영이 21초가 적다. 속오군의 경우, 군역수는 인조 때까지 10만 대외를 유지하다가 숙종 대

(牙兵)과 병영의 친병(親兵) 등이 얼마나 소집되고 동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 후기로 갈수록 많은 병력이 수포군화 되었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실제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895년 『병영영지(兵營營誌)』에 따르면 강진병영의 신역자 10,850명 중 물납화 비율이 전체 액수의 94.8%에 이르러 실역자는 고작 559명에 불과할 정도였다.²⁹⁾ 아직 균역법이 도입되기 이전인 1728년 시점에서는 수포군화 비율이 이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728년 시점에서 전라도 지방관들이 실제로 동원할 수 있었던 병력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라도 지역의 속오군, 그중에서도 무신란 당시 실제로 소집되어 경상도 반란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아내는 활약을 펼친 운봉 좌영진의 속오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라도에 설치된 진영의 영장 중 순천과 전주, 나주의 영장은 전임 영장이 별도로 파견되었고, 운봉과 여산은 수령이 겸하는 겸영장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중 운봉 좌영에 속한 고을은 남원·곡성·장수·창평·옥과·구례였고, 진영의 병력은 마병 2초(보인 436명),

인 17세기 말에 20만 정도로 증가한 뒤 18세기 말까지 유지되는 추세를 보인다(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강화」, 앞의 책, 127쪽. 각주 137). 감영과 병영의 병력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17세기 말에 증액되었다고 가정하면, 1728년 무신란 당시 감영 아병과 병영의 친병 규모는 18세기 후반보다 다소 적은 30초와 45초에 가까운 숫자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29) 『병영영지』 군병; 송양섭, 앞의 논문, 44~45쪽. 감사의 직할병력으로 만들어진 아병의 경우, 17세기에 정식으로 제도화될 때부터 이미 재정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포군의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김우철, 앞의 책, 190~192쪽). 다만 정확한 규모는 알수 없지만, 무장(茂長)에 설정된 아병과 이를 담당한 아병장관이 무신란 당시의 기록에 보인다(변주승 역, 『추안급국안』 47권, 흐름출판사, 2014, 118~121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 같은 책, 276~279쪽. 영조 4년 12월 25일 김상채 진술 참조). 이 기록을 통해 1728년 당시 전라감영의 아병 전체가 수포군이 아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신별등록』 등에서도 감사와 병사가 지휘한 구체적인 병력 규모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속오 34초(보인 4,656명)·표하군 287명·당보군 120명·수술군 492명이었다.³⁰⁾ 군액 관련 자료로 병력의 규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영병제총록』에서는 총 10,032명, 『군국총목』에서는 총 10,733명이라 하고 있다.³¹⁾ 이중 장교와 군관 등을 제외하고 『동국문헌비고』 등에 기록된 역종을 중심으로 병력 규모를 정리하면 다음 <표 2>과 같다.

<표 2> 운봉 진영의 군액수 비교

| 역종 | 『완영병제총록』의 군액수 | 『군국총목』의 군액수 |
|------|---------------|-------------|
| 마병 | 230 | 218 |
| 마병보 | 460 | 436 |
| 속오군 | 4,059 | 4,070 |
| 속오군보 | 4,142 | 4,656 |
| 표하군 | 439 | |
| 당보군 | 144 | 125 |
| 수술군 | | 492 |
| 기타 | 431 | 430 |
| 합계 | 9,905 | 10,427 |

즉, 두 자료의 기타 역종에서 일부 차이가 있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주력인 마병과 속오군의 규모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좌영장 겸 운봉현감이 무신란 당시 속읍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마병 2초, 속오군 34초에 표하군과 당보군, 수술군 등을 포함해 약 5,000명 내외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수령의 경우, 기본적으로 군사지휘관으로 병사를 이끌고 토벌에 참전할 수 있었다.³²⁾ 그러나 대체로 자기 고을의 속오군 등

30) 『동국문헌비고』 54권, 병고3 ; 『증보문헌비고』 118권, 병고 10; 송양섭, 앞의 책, 47쪽.

31) 『완영병제총록』, 운봉진 ; 유동호·이석린, 앞의 논문, 217쪽 ; 송양섭, 앞의 논문, 45~46쪽. 논문의 오기 및 오류 일부를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32) 각 속읍 별로 수령에게 배속된 병력의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전라병사 조경은 운봉과 남원, 장수 세 고을의 군병 수가 3,482명이라고 하고 있다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국사편찬위원회, 1993, 497쪽. “...雲

을 진영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지방군이 운용되었으므로, 병력을 인계한 이후에는 자체 병력이 없었다. 그래서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령이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노작대를 편성하자는 건의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무신란 이후였다.³³⁾ 그러므로 무신란 직전의 수령은 속오군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수하에 별다른 병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³⁴⁾

3. 반란 대응체계의 실제 운용 양상

본 장에서는 무신란 당시 운봉현감 겸 좌영장 손명대가 경상도 반란군이 넘어오려 했던 주요 고지인 팔량치를 선점하고 반란군과 대치한 과정을 분석하여 실제로 반란에 대응한 양상을 중심으로 정

峰, 南原, 長水, 三邑軍兵, 摠以計之, 合爲三千四百八十二名是白在如中...”). 태인 현감 박필현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관군을 속여 전주성으로 끌고 갔을 때의 인원은 병사 8초에 별군관 100명이었다(『무신별등록』 권1, 『각사등록』 67, 279쪽. 영조 4년 3월 22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各人等招內…本縣舊官, 聞新官之猝至, 急發本縣軍兵八哨及軍官百餘人…”). 전라병사가 거론한 세 고을의 병력은 <표 2>를 고려해보면, 보인까지 포함한 최대 동원가능 병력으로 보인다. 또한, 태인 지역은 전라 좌영장 소속이 아니지만, 이 기록은 한 고을에서 현실적으로 최대로 동원 가능한 병력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고을의 규모에 따라 가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관은 대략 700~800명 정도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3) 이노작대에 관한 내용은 송양섭, 앞의 책, 108~115쪽; 김우철, 앞의 책, 199~204쪽 참조.

34) 다만 이노작대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무신란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서 수령의 재량에 따라 조직된 사례가 보인다. 즉, 전주성에서는 전주진영 이숙의 하인인 백문채(白文采)가 이노작대에 소속되어 성머리에서 보초를 섰던 기록이 있다(『추안급국안』 47권, 40쪽. 영조 4년 8월 5일 백문채 진술). 또한, 박필몽(朴弼夢)이 반란에 가담할 의도를 숨기고 유배지인 무장의 현감 김몽좌(金夢佐)에게 병력을 요청하자, 이노작대 30명을 박필몽에게 내주어 함께 가도록 한 사례도 확인된다(『추안급국안』 47권, 2014, 118~121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과 같은 책, 276~279쪽. 영조 4년 12월 25일 김상채 진술 참조).

리하였다. 이를 위해 『무신별등록』의 전임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와 신임 전라감사 이광덕(李匡德), 전라병사 조경(趙倣), 남원부사 김유(金澁), 운봉현감 겸 전라좌영장 손명대의 보고를 주로 활용하였다.

가. 반란 인지와 초기 대응

영조 4년(1728) 3월 15일에 이인좌가 지휘하는 경기·충청도의 반란군은 청주성을 기습적으로 점령했다. 이 소식은 충청감사 권침(權詹)이 전라감사 정사효에게 비밀공문[秘移]을 보내면서 전라도 지역에 전해졌다.³⁵⁾ 이러한 소식이 전라도에 도착한 날짜에 대해 당시 전라감사 정사효의 장계와 진술에서는 3월 19일이라고 하고 있다.³⁶⁾ 하지만 청주성 함락 소식 자체는 18일 늦은 오후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처럼 반란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도 지역의 지방관들은 19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다. 먼저 전라감사 정사효는 19일에 바로 강진의 전라병영에 있는 전라병사 조경을 포함해 각 지역의 지방관에게 청주의 반란 소식을 알렸다.³⁸⁾ 다음날인 20일에 정

35) 『무신별등록』 권1, 『각사등록』 67, 국사편찬위원회, 1993, 128~129쪽. 영조 4년 3월 19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忠淸監司臣權詹秘移內, 道內淸州賊徒, 本月十五日夜半陷城, 兵使及中營將, 俱被殺害, 變起倉卒, 凶熾凶關, 遍行道路, 事極驚心痛惋是去乎. 貴道與本道連境, 不可不急速通報乙仍于, 如是文移是如爲白有臥乎所. … 忠淸監司, 必已以此啓聞是白乎矣, 或慮道路梗塞, 未卽傳達, 自臣營, 茲以急急馳啓事. 三月十九日封啓.”

36) 『추안급국안』 43권, 76쪽. 영조 4년 4월 7일 정사효 진술.

37) 이 장계를 작성하기 전인 18일 저녁때 무장현감 김몽좌(金夢佐)가 전라감영에 가는 도중 태인현에 묵었을 때, 병영 소속 군관이 강진으로 내려가면서 청주성 점령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했다(『추안급국안』 47권, 115~116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 이에 김몽좌는 바로 태인을 떠나 무장으로 돌아가면서, 정읍현감 목증형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목증형은 정식으로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반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준 군관을 의심하여 잠시 가둬두기도 했다(『추안급국안』 44권, 228~229쪽. 영조 4년 4월 26일 목증형 진술).

사효는 다시 장계를 올려 어떻게 대응할지 속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³⁹⁾

전라감사 정사효가 중앙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21일에 전라감사의 공문을 받은 전라병사 조경은 즉시 속오군을 소집하라고 도내 각 영장에게 명령을 내렸고, 병사 자신도 병영 인근에 거주하는 친병을 소집하고 있다고 조정에 보고했다.⁴⁰⁾ 이러한 전라감사의 공문과 병사의 명령을 받은 전라도 지역의 지방관들은 각자 병력을 소집해 기다리고 있었다.⁴¹⁾

이런 중에 경상도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영조 4년 3월 20일에 안음(安陰:현재 안의면)에서 정희량(鄭希亮)과 이웅좌(李熊佐=李熊輔) 등이 거병하였다.⁴²⁾ 20일 당시 운봉영장 손명대는 19일에 전라감사 정사효가 보낸 공문을 받고서 바로 전라좌군영 소속의 7읍에 공문을 보내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조정의 후속 명령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다음날인 21일에 함양군수(咸陽郡守) 박사한(朴師漢)이 보낸 편지를 보고서야 경상도 안음에서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다.⁴³⁾

3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48쪽. 영조 4년 3월 21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節當日到付, 今月十九日, 所出本道巡察使臣鄭思孝關內, 卽刻到付, 忠淸監司秘移內, 道內淸州賊徒, 本月十五日夜半陷城 … 貴道與本道連境, 不可不急速通報乙仍于, 如是文移是如爲有馭乎所…”; 『추안급국안』 44권, 228~229쪽. 영조 4년 4월 26일 목중형 진술.

39) 『무신별등록』 권1, 『각사등록』 67, 218~219쪽. 영조 4년 3월 20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昨伏見忠淸監司臣權詹秘關, 知淸州變作之報, 卽爲馳啓, 未知無中路梗塞之患, 而已爲得達是白乎旂, 自聞此報心墜膽裂, 以滅此賊, 辦一死爲期爲白乎矣. 未聞朝廷命令, 罔知攸措是白置, 令廟堂急速區劃指教, 以爲奉行之地爲白爲. 三月二十日封啓.”

40)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48~449쪽. 영조 4년 3월 21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軍務凡事各別整待, 以待朝家分付, 宜當向事, 關是白置有亦. … 束伍軍兵, 各別整齊, 以待朝令之意, 星火嚴飭於道內各營將處爲白遣, 臣營親兵居在營下者, 一邊聚集, 調點整待, 緣由馳啓事. 三月二十一日封啓.”

41) 『추안급국안』 47권, 117~118쪽. 영조 4년 12월 9일 김몽좌 진술.

42) 『영조실록』 4년 3월 27일 정축.

43)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7~548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本月二十日, 到付本道觀察使臣鄭思孝秘關…軍務凡事, 各別預爲整

이에 손명대는 먼저 가까운 남원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남원부의 병력 3초를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직 병력을 소집하는 중이라 운봉영장이 동원할 수 있는 병사는 잡색병(雜色兵) 수백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⁴⁴⁾ 그리고 경상도로 군관을 파견해 박사한이 전한 반란 소식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다.⁴⁵⁾ 이렇게 확인까지 마친 손명대는 23일에 전라감사 정사효와 전라병사 조경, 호남별견어사 이광덕 등에게 일단 현재까지 파악한 반란군의 상황을 보고했다.⁴⁶⁾

박사한은 반란군이 함양을 거쳐 팔랑치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여 반란군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⁴⁷⁾ 이러한 박사한의 편지에 더해 정찰을 통해 반란을 확인

待, 以待朝家處分亦爲白有遣, 同日良中, 又以本鎮所管軍務申飭等事, 發關分付是白乎等以, 臣不勝驚痛, 卽發關分付于所屬七邑, 使之急急整勅軍馬, 以待朝家處分是白如乎. 意外今二十一日, 慶尙道咸陽郡守朴師漢, 飛書告急內, 有大賊結陣於安陰古縣…”

- 44)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鎮邑雲峰軍額至少, 雜色并不過數百, 以此零些羸弱之卒, 難拒浩多方張之賊是白乎等以, 爲先以本鎮附近邑, 南原束伍三哨, 把守嶺阨之意…”;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6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一日, 到付左營將孫命大關內 … 自嶺南踰八嶺峙是如, 傳說不啻狼籍, 本鎮所屬兵馬, 所當聚會於此, 以爲共濟之道, 而本府城守, 亦不可少緩, 至於雲峰, 軍額雜頃, 并二哨而已, 則其在防守嶺阨之道, 不可分而二之, 本府三哨軍, 囟夜起送, 以爲合力分守之地亦爲白有矣…”
- 45)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8~549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臣卽使軍官朴完業, 全始大, 金允耆等, 密密偵探於安陰居昌等地, 則賊中事情, 果如朴師漢所報, 而軍官朴完業回告內, 賊將鄭舜陽, 盧鎰萬是如爲白遣, 朴師漢書中云, 首賊則李熊輔, 副賊則鄭希亮是如爲白遣, 軍官金允耆回告內, 賊將鄭希亮, 李熊輔, 鄭遵儒, 盧世梓是如爲白有旆…”
- 46)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1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三日成貼, 左營將兼雲峰縣監孫命大馳報…”;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551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爲先以本鎮附近邑南原束伍三哨, 把守嶺阨之意, 馳報本道, 兩營, 及別遣御史是白如乎…”
- 47)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8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意外今二十一日, 慶尙道咸陽郡守朴師漢, 飛書告急內, 有大賊結陣於安陰古縣…賊鋒自本郡將向八良峙, 不可不急速防守, 以爲遮截賊路之計是如爲白去乙…”

한 손명대는 반란군이 전라도로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팔랑치를 최우선으로 방어하기로 했다. 함양에서 안음까지의 거리는 40리이고 함양에서 운봉까지의 거리는 50리로, 만약 반란군이 함양까지 진출한다면 하루 안에 전라도 진입이 가능한 거리였기 때문이었다.⁴⁸⁾

그러나 23일 시점에 바로 팔랑치 수비에 나서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는 아직 병력을 소집하는 중이라 운봉영장이 동원할 수 있는 병사는 수백 명에 불과했다. 앞서 21일 가까운 남원부에 공문을 보내 병력 3초를 먼저 보내달라고 급히 요청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했다.

두 번째는 병력을 집결시키려 해도 조정의 명령 없이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영장이 비록 속읍의 발병부를 가지고 있어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상급 지휘관인 감사나 병사의 지시, 더 나아가 조정의 명령 없이 함부로 병력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남원부사 김유는 손명대의 병력 지원 요청을 즉각 수락하지 않았다.⁴⁹⁾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손명대는 감사나 병사의 명령이 없음에도 23일에 부족하나마 운봉의 병력을 이끌고 팔랑치로 먼저 이동했다.⁵⁰⁾ 같은 날에 경상도 반란보고를 받은 전라감사 정사효가 남원의 병력을 손명대에게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지시가 당일 남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김유는 손명대에게 병력 3초를 보냈다.⁵¹⁾

4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8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二十一日, 慶尙道咸陽郡守朴師漢飛書告急內...本郡距安陰, 纔四十里許...本鎮之距咸陽, 僅五十里, 雖曰他道, 實爲交界吐分不諭...”

49)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1~322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一時到付, 今三月二十三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左營將, 亦以此通報, 本府三哨軍, 刻期發送亦爲乎矣, 以未有發軍之朝令, 未卽舉行矣...”;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3~462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其時不但軍兵未盡來會亦無發兵之朝令故以不得起送之意論報...”

50) 『영조실록』 4년 3월 28일 무인.

51)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1~322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一時到付, 今三月二十三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卽到付, 左營將關內, 卽回咸陽郡守, 送書細探安陰賊報, 則其勢甚盛...越境之患, 迫在朝夕,

정사효는 24일에 다시 장계를 올려 경상도의 반란 소식과 남원·운봉의 병사가 팔랑치를 지키고 있다는 등의 수비상황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남원이 뚫릴 경우를 대비해 전주 인근의 병력을 소집해 변란을 대비하고자 하며, 새로 감사로 임명된 이광덕이 도내에 있으니 빨리 부임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⁵²⁾

3월 24일에 손명대의 보고를 받은 전라병사 조경은 팔랑치는 중요한 고지인데 동원된 병력이 너무 적으니 추가로 병력을 동원하도록 했다. 즉, 남원 이외에 팔랑치와 가까운 장수까지 포함해, 운봉·남원·장수에서 먼저 병사를 징발하도록 했다. 이외에 옥과, 창평, 곡성, 구례 등 좌영장 관할 지역에서도 병력을 징발해 운봉영장이 지휘하여 수비하라고 지시했다.⁵³⁾

나. 병력 집결과 팔랑치 수비

반란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와 병사, 영장과 수령

咸陽郡守回營門關文，今方發軍守八良峙，道亦方為領軍進往，以為遮絕之地為去乎，三哨軍兵分定，本府急急起送云，而以本府之末即發送，視若故為推托者然，而責之甚截是平等以，不得已束伍軍三哨，令座首張懋，把摠金萬光領率，即刻發送為有如乎…”；『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 부사 김유 장계. “…二十三日，左營傳令，又為來到，而亦令發軍，令座首，吏兵房，領付亦為白有遣，同日來到巡營題本府報狀內，有曰賊勢如此，雲峰營將關辭又如此，則不可不急時調軍起送，以為遮絕嶺陁之地為白有去乙，不得已調發三哨軍兵，令座首，將官領付為白乎於…”

52)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22~323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任實全州，即自南原西上之直路，備禦之道，不容少緩是白乎等以，預為整飭軍兵，以為待變之地為白乎於，臣既已遞職，新監司方在道內，斯速赴任事，自朝家急速下諭之意，并以馳啓事。三月二十四日封啓。”；『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28일 무인 31번째 기사.

53)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97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防守軍兵之說調發者，既如是零星，則嶺陁緊要之處，勢難分排堅守是白乎以，南原府軍兵，先發三哨外，餘數未及徵發者，及附近長水軍兵，并令徵發，使之急急分守，而雲峰，南原，長水，三邑軍兵，摠以計之，合為三千四百八十二名是白在如中，八良之於南原，長水最是附近是白乎等以，先發三邑之軍，而其外玉果，昌平，谷城，求禮，俱是左營將所管乙仍于，亦令徵發軍兵，一從左營將號令舉行之意，亦為發關嚴飭為白乎於…”

사이에 여러 보고와 지시가 오고 가는 와중에도, 손명대는 계속 경상도 반란군을 정탐하면서 팔랑치를 지킬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24일 시점에서 경상도 반란군이 안음, 거창, 산음 등을 점령하여 관청 창고의 식량과 무기 및 사근역(沙斤驛)의 역마를 약탈하여 무장을 갖추고 함양 인근까지 진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반란군이 팔랑치를 넘어 전라도로 진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팔랑치에 모인 군사는 남원의 병사 3초와 운봉의 병사를 포함해 10여 초에 불과했다.⁵⁴⁾

이 때문에 손명대는 다시 남원부사 김유에게 공문을 보내 추가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남원부에 있는 어영청과 금위영 소속 군인과 대솔군관(帶率軍官) 100여 명을 빨리 보내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유는 어영청과 금위영 소속 병사는 좌영장이 함부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고, 남원부의 대솔군관은 별로 모이지도 않았는데, 이 병력까지 보내게 되면 남원이 텅 비게 되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⁵⁵⁾

이렇게 추가 병력 동원 문제를 두고 운봉영장 손명대와 남원부사

54)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 403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今三月二十五日…一時到付, 左營將孫命大馳報內, 本鎮偵探將校連次回告內, 嶺南賊勢, 日益鷄張, 橫行於安陰, 居昌, 山陰, 三四邑之間, 盡掠其官庫軍物, 又盡取沙斤驛騎卜馬, 成陣於咸陽境是如爲臥乎所, 其越境之患, 迫在頃刻, 南原三哨軍, 及各邑軍兵折半段, 已爲聚待於嶺陁是乎矣. 以如千十餘哨軍兵, 萬無防備之路…”

55)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 401~404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五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卽到付, 左營將關內, 賊兵已到咸陽, 咸陽之距八良嶺, 不過數十里, 方與咸陽郡守, 合力守嶺, 而兵力單弱是如, 本府所在御營, 禁衛軍, 善放者, 及善射帶率軍官, 百餘名, 急速領付亦爲有如乎. 御營, 禁衛軍, 及本府帶率軍官, 既非左營之所調發者叱分不喻, 昨日起送三哨束伍軍, 以爲防守八良嶺之地. 今又加送御營, 禁衛軍官, 合三哨軍兵, 則本府便作空城, 設有意外之變, 誰能禦之…”;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458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四日…今日暮夜, 又以書飛傳, 且聞其傳書兩裨之言…本府禁衛御營軍, 善放者二哨, 及善射帶率, 百餘名, 親率領付, 而歸亦爲乎矣. 第御營, 禁衛軍, 乃是輦下親兵, 不知何時, 有徵發之朝令, 則非臣所可擅送遠地是白遣, 所謂帶率軍官段, 近來募得之人, 不過四十餘人, 雖欲起送百餘名, 其勢末由乙仍干, 具由論報…”

김유가 논쟁하던 도중에 전라감사 정사효의 답변[回題]이 도착했다.⁵⁶⁾ 즉, 운봉영장 손명대에게 병력을 소집해 팔랑치를 방어하라는 지시로, 필요하다면 손명대가 남원에 공문을 보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운봉영장 손명대는 즉시 좌영장 관할 지역의 수령에게 모든 병사를 이끌고 팔랑치로 오라는 전령을 보냈다.

이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추인(追認)을 얻기 위해 감사와 병사, 호남 별견어사에게도 다시 보고를 올렸다.⁵⁷⁾ 또한 감사와 병사, 영장에게도 각각 지휘권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정의 명령 없이 병력을 팔랑치로 소집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27일에 따로 조정에 장계를 올려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조정의 명령 없이 함부로 병사를 동원한 점에 대해 사죄하였다.⁵⁸⁾

25일에 신전(信箭)과 함께 남원부사 김유에게 남원의 속오군 전부를 끌고 오라는 손명대의 군령이 담긴 공문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56)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觀察使臣鄭思孝回題內, 賊勢如此, 不勝驚訝。營將卽爲領率軍兵, 以爲遮截八良嶺之地爲旂。南原三哨軍, 急速調發事, 今方分付爲在果。三哨果不單弱是乙喻, 營將量度事勢, 這這發關於南原府, 宜當是旂。八良峙, 乃一夫當關, 萬夫莫開之地, 營將若善爲防守, 則豈有任賊踰嶺之理哉。各別出方略, 盡心舉行亦爲白遣...” 전라감사의 회신이 도착한 날짜와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전주-운봉 간의 거리와 보고의 전후 관계를 따져볼 때 24일 밤이나 25일 아침에 도착했다고 추정된다.

57)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49~550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兵使及御史回題, 遠不及來到爲白有矣, 事機緩急在於頃刻呼吸之間, 而南原三哨勢, 亦單弱不足抵當乙仍于, 屬邑軍兵, 竝爲調赴本鎮之意, 一報于兩營, 及別遣御史, 一邊星火傳令于南原府使金濰, 谷城縣監李東弼, 求禮縣監申璧, 長水縣監權萬斗, 玉果縣監嚴漢重, 昌平縣令朴壽仁, 使之火急調兵, 罔夜領付爲白有如乎...”;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03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一時到付, 左營將孫命大馳報內...屬邑軍兵, 各邑守令沒數領赴之意, 傳令分付爲乎旂, 舉行形止, 爲先星火馳報爲臥乎所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458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四日...報狀發送移時之後, 左營將關文, 及信箭來到, 令臣調發軍兵, 刻期餘領付亦爲白如乎...”

5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50~551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대 장계. “...凡係徵發之事, 宜待朝令是白乎矣, 急於登時捍賊, 只據巡營回題, 先調屬邑軍兵。臣伏不勝惶恐埃罪...”

감사의 위임을 받은 군령이었기에 김유는 거부하지 못하고 2초의 병력을 추가로 선발해 남원에서 출발했다.⁵⁹⁾ 이외에 전령을 받은 다른 속읍의 수령들도 속오군을 이끌고 팔랑치에 집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26일까지 도착한 지방관은 곡성현감 이동필(李東弼)뿐이었고, 남원부사 김유와 장수현감 권만두(權萬斗)는 병력을 직접 이끌고 오다가 병이 나서 병력만 보냈다. 창평현령 박수인(朴壽仁)과 옥과현감 엄한중(嚴漢重), 구례현감 신벽(申璧)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도 일단 26일까지 도착한 병력을 팔랑치와 황산(荒山)의 요충지에 배치하였다.⁶⁰⁾

이후 27일까지 팔랑치에 집결한 병력은 원래 있던 운봉 2초에 남원에서 5초, 곡성에서 2초, 장수에서 3초, 옥과에서 2초, 구례에서 1초, 창평에서 3초, 총 18초였다.⁶¹⁾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운봉

59)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 402~403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五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左營將送信箭, 及關文本府束伍軍兵, 全數徵發, 使之赴八良嶺, 協守亦爲有臥乎所, 營將既送信箭, 則不可不赴, 今方調發軍丁爲乎矣.”;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7~462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本月二十四日…移時之後…左營將關文, 及信箭來到, 令臣調發軍兵, 刻期餘領付亦爲白如乎, 本府城守, 雖萬分緊急是白乎乃, 營將既送信箭, 則其在軍法, 不可不承, 而本城安危, 有不暇恤是白乎等以, 臣又選二哨軍兵, 親自領出城門, 則滿城男女, 哭聲徹天, 將爲四面分散之計是白去乙, 臣駐兵路上, 多般曉諭言, 吾之妻孥, 尙留城中, 領付軍兵後, 卽當還歸, 與爾等以死守堞, 慎勿驚恟申申言說, 始乃鎮定爲白乎旡…” 3월 26일 남원부사의 보고에서는 마치 3월 24일 밤에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늦은 밤에 군사를 거느리고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출발하면서 겪은 일들도 한밤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3월 25일에 전라감사에게 보낸 보고 마지막 내용이 남은 병력 2초를 거느리고 남원성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5일에 운봉영장의 관문과 신전이 도착해 남원부사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출발했다고 추정하였다.

60)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63~564쪽. 영조 4년 3월 28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卽到付, 雲峰縣監孫命大, 今月二十六日, 成貼牒呈內…本鎮所屬各邑軍兵段, 南原起送五哨兵, 而府使金濰以身病, 不得領付是如爲乎旡, 谷城縣監, 當日朝, 親自領付, 長水縣監, 到中路得病是如, 軍兵叱分沒數來付爲有旡, 昌平縣令, 玉果縣監, 求禮縣監, 姑未齊到爲有旡, 上項各邑軍兵, 來赴者, 則隨到隨赴於八良, 荒山要害險陌處, 以盛軍威誓, 使賊兵不得踰嶺是遣…”

61)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50쪽. 영조 4년 3월 27일 운봉좌영장 손명

영장이 속읍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마병 2초와 속오군 34초에 표하군, 당보군, 수솔군 등을 더해 약 5,000여 명 내외였다. 그러므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약 2/3만 소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세를 불린 경상도 반란군은 28일에 함양까지 진출하였다. 이때에는 이미 손명대가 소집한 전라도 관군이 고지를 점령한 뒤였고, 운봉영장 손명대도 직접 팔랑치에 올라와 있었다. 함양이 함락되기 직전에 팔랑치로 피신한 박사한이 반란군의 접근 소식을 알렸고 손명대가 바로 정찰을 보내 상황을 확인하니 이미 반란군이 함양으로 들어온 상황이었다. 이에 손명대는 적극적으로 함양으로 내려가 반란군을 토벌하는 계획도 고려했다. 그러나 조정의 명령 없이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는 함부로 제멋대로 구는 죄[專輒之罪]가 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함양에 주둔한 반란군의 상황을 계속 정탐하면서, 부대의 진용을 펼쳐 팔랑치와 황산 등을 굳게 지키며 경상도 반란군의 월경에 대비했다.⁶²⁾

결국, 경상도의 반란군은 이런 지방군의 대응에 팔랑치를 넘기 쉽지 않음을 깨닫고 하루 정도 대치하다가 별다른 군사적 충돌 없이 30일 새벽에 부대를 둘로 나누어 각각 안음과 거창으로 돌아갔다. 대신 최존서(崔存緒)를 가짜 함양군수로 임명해 관아를 장악하게 하고 관아의 무기 등을 거창과 안음의 반란군에게 수송하도록

대 장계. “...南原兵五哨, 谷城兵二哨, 長水兵三哨, 玉果兵二哨, 求禮兵一哨, 昌平兵三哨, 已爲來赴, 與雲峰兵二哨, 合力把守, 控制八良, 誓使此賊, 不得越嶺爲白在果...”

- 62) 『사변일기(事變日記)』 권3(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영조 4년 8일에 도착한 운봉영장 손명대 장계. “...臣以二十八日, 親自巡視嶺上, 軍陣爲白如乎. 咸陽郡守朴師漢, 奔告內, 賊兵直擣咸陽是如爲白乎所, 臣急使走探, 則賊已陷城入據, 聞來不勝驚駭, 直欲領兵進討, 決死一戰是白乎. 不待朝令, 行軍出境, 尤有專輒之罪是白乎等以, 臣盛張軍容, 固守諸處險要...” 이 장계의 원문은 『무신별등록』에 보이지 않아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무신별등록』 권2 끝 부분과 권3 앞부분에 각각 낙장이 있어, 4월 3일에 도착한 보고 일부와 4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도착한 보고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했다. 이에 운봉영장 손명대 등은 병력 수십 명을 보내 반란에 가담한 최존서 등을 사로잡고 함양을 탈환하였다.⁶³⁾

4. 결론 : 전라도 지역 반란 대응체계의 문제

이상에서 전라도 지역의 대응체계와 병력 동원 규모 등을 검토하고, 무신란 당시 경상도 반란군이 전라도로 넘어오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실제로 병력을 소집해 대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반란군이 주요 고지인 팔랑치까지 진출하기 전에 관군이 먼저 집결해 경상도 반란군의 전라도 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는 지휘체계와 병력동원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정리하였다.

먼저 지휘체계의 혼선과 지휘관의 역량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지방군의 지휘체계는 기본적으로 감사-병사-영장-수령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감사와 병사, 영장이 모두 병사를 동원할 수 있는 발병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명목상 감사의 지위가 병사보다 높았지만, 실제 병무에 있어서는 병사도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 반면 지리의 한계상 전주감영 인근 고을의 지휘는 겸병사인 전라감사가 지휘해야 했다. 이러한 지휘체계상의 난맥상은 실제 반란 대응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는 혼란상을 연출했다.

특히 경상도 반란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접경지역을 수비하는

63) 『사변일기(事變日記)』 권3, 영조 4년 8일에 도착한 운봉영장 손명대 장계. “...晦日曉頭良中, 賊兵二派, 盡爲退走, 而一派則還屯居昌, 一派則還屯安陰爲白遣. 賊將以咸陽人崔存緒, 留爲僞郡守, 入居官衙, 因以行公, 又爲輸送軍器於賊中是如爲白去乙. 臣卽發手下精兵數十人, 使軍官張漢三, 朴起龍, 領往而咸陽郡守朴師漢, 亦送其所帶下吏徐文徵, 使令宋有發, 捉得存緒綁縛以來爲白有置. 此賊罪惡誠不容一刻置之於覆載間是乎等以, 卽爲梟示陣前爲白遣...”;

전략에서도 감사와 병사는 서로 다른 지시를 내렸다. 전임 전라감사 정사효는 소극적으로 팔랑치의 수비만 운봉영장 손명대에게 지시했다. 전라병사 조경은 3월 24일에는 무주(茂朱)의 수비를 지시하면서, 후영장 겸 여산부사 유성징(柳聖澄)이 용담(龍潭)과 금산(錦山)의 군대를 동원하여 수비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⁴⁾ 27일에는 운봉에 모인 병력이 고작 10여 초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보고 즉시 운봉 좌영 속읍의 수령에게 모든 병사를 소집하도록 지시했다.⁶⁵⁾

반면 후임 전라감사인 이광덕은 이와 다른 지시를 내렸다. 즉, 3월 30일에 운봉 팔랑치는 전라병사 조경과 좌영장 손명대가 운봉, 남원, 임실, 곡성 등 네 고을의 병력을 동원해 수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팔랑치를 수비할 병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전라감영에서 정병 2초를 뽑아 보내주어 보완하였다.⁶⁶⁾ 팔랑치 이외에 반란군이 넘어올 수 있는 다른 경로인 화개동(花開洞)은 구례 현감이 지키고, 육십령(六十嶺)은 진안 현감 이정(李淨)이 진안과 장수 두

64)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97~498쪽. 영조 4년 3월 24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且念自安陰, 由知禮縣, 作路於茂朱, 則乃是到清州之路, 而其間道里若由直路...今此賊徒, 若欲合勢於清州, 則徑到茂朱之弊, 難保其必無乙仍于, 亦令茂朱, 諷探賊情, 果由千萬嶺而來, 急發本府軍兵, 先爲進守嶺陔. 而茂朱軍兵, 竝計赤裳山城之屬, 不過八百七十名, 則以此疲殘些少之軍, 難以防遏方張之賊勢. 故茂朱近邑, 龍潭, 錦山之軍, 亦令調發添數防守之意, 後營將柳聖澄處, 及龍潭, 錦山, 兩邑良中, 一體發關嚴飭爲白遣. 自臣營定送軍官於雲峰, 茂朱兩處, 使之諷探, 星火馳告是白在果...”

65)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90~591쪽. 영조 4년 3월 27일 전라병사 조경 장계. “...同月二十七日卯時到付, 左營將孫命大馳內...其越境之患, 迫在頃刻, 南原三哨, 各邑軍兵折半, 已爲聚待於嶺陔是乎矣, 不可以如十餘哨之軍, 萬無防備之路乙仍于, 屬邑軍兵, 各邑守令, 沒數領赴之意, 傳令分付爲乎旆...自雲峰由南原, 至任實全州, 則卽西上之路, 而任實全州, 乃是中營將管邑是白遣, 礪山亦, 亦後營將所住之處, 而與全州相接, 一串沿路, 直由礪山是白乎等以, 速發屬邑軍兵, 整待於防守之處事. ...緣由爲先馳啓事. 三月二十七日封啓.”

66)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600쪽. 영조 4년 3월 30일 전라감사 이광덕 장계. “...其中八良嶺段, 自是湖嶺間大路, 賊兵且近同嶺, 若使彼賊, 終有越境之舉, 則勢將必取此路, 其爲防守, 非比他路. 故以兵使趙徹, 左營將孫命大, 領雲峰, 南原, 任實, 谷城等, 四邑軍兵, 使之合力防守, 而自臣營, 亦擇精兵二哨, 別定將校二人, 罔夜領送于八良, 使助軍勢爲白乎旆...”

고을의 병력으로 지키도록 했다. 지례와 무주의 경계는 무주부사 조유수가 진산(珍山)과 금산, 무주, 용담 등 네 마을의 힘을 합쳐 수비하게 했고, 섬진(蟾津)은 광양에서 홀로 지키도록 했다.⁶⁷⁾

이러한 두 지시에서 무주 지역의 수비에 관한 명령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운봉 좌영장의 속읍인 장수와 구례에 대한 감사와 병사의 명령은 서로 상충하고 있다. 즉, 병사는 속읍의 모든 병사를 소집해 팔랑치를 지키라고 했는데, 감사는 구례의 병력으로 화개동을 지키고 장수의 병력은 육십령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의 지위가 높다고 하지만, 이처럼 감사와 병사의 서로 다른 지시가 도착했다면 각 지역의 지방관은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와 같은 감사와 병사의 지휘체계 혼선은 이미 제도상에서 예견되었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병폐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휘체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지휘관의 개인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지방관이 근무에 익숙할 수 없었으므로 긴급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남원부사 김유는 반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정찰보고에서 반란군이 집결한 장소를 안음과 거창이 아닌, 지리산 남쪽 산자락에 있는 연곡사(鰲谷寺)와 쌍계사(雙溪寺) 사이로 잘못 보고했다.⁶⁸⁾ 게다가 경상도 반란군이 넘어올 수 있는 거점

67) 『영조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599~600쪽. 영조 4년 3월 30일 전라감사 이광덕 장계. “...凡所防備之道, 今若失措, 終至越境, 則禍將難測, 而其所踰越之處, 不特八良一路而已. 河東, 求禮界之花開洞, 安陰, 長水界之六十嶺, 智禮, 茂朱地境, 與光陽地, 蟾津, 俱有大小間通路, 不可不一體防守乙仍于, 臣於到營之日, 參酌大小路形勢, 卽爲部署各邑. 河東求禮界花開洞段, 使求禮獨力防守. 安陰長水界六十嶺段, 以鎮安縣監, 李淨, 督戰將差定, 使鎮安長水兩邑, 合力防守. 智禮茂朱地境段, 以茂朱府使, 趙裕壽, 督戰將差定, 使珍山, 錦山, 茂朱, 龍潭等四邑, 合力防守. 光陽地蟾津段, 使光陽, 獨當防守, 以備不虞爲白乎旅...”

68)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399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인 팔랑치 수비보다 남원성 수비를 더 중시했다. 즉,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운봉영장 손명대의 병력 지원 요청은 거절하였다. 반면 남원성 수비를 위해서 남원 경내의 승군(僧軍)까지 동원하여 수비의 요충지인 교룡산성(蛟龍山城)의 성가퀴를 보수하려 했다.⁶⁹⁾ 심지어 김유는 손명대가 징발한 병력 중 옥과(玉果)의 병력이 25일에 남원성 밑에 도착했을 때, 이를 다시 돌려보내 구례를 지키게 하려고 했다.⁷⁰⁾ 이는 팔랑치가 소수로 다수를 막을 수 있는 거점이므로 운봉영장 손명대가 단독으로 지킬 수 있지만,⁷¹⁾ 반란군이 거짓으로 팔랑치를 넘는 척하면서 구례 방면으로 우회해서 진출할 경우 남원이 위험하게 되므로 구례 방면을 지켜야 한다⁷²⁾는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월권이였다.

병력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신속한 소집이 어려웠다는 점과 실제 모인 병력의 규모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우선 소집의 문제는

장계. “卽刻到付, 今三月二十五日成貼, 南原府使金濰馳報內…昨日, 偵探將校來言內, 河東, 燕谷, 雙溪之間, 賊兵大聚…”; 『영조실록』 4년 3월 29일 기묘;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5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臣聞甚驚駭, 枚報營門, 而死病未蘇, 精神昏錯, 賊將留屯古縣一款, 誤以留屯燕谷, 書之. 賊騎往來燕谷雙溪一款, 誤以出沒, 安陰, 咸陽, 書之爲白有如乎. 賊情探報, 何等重事, 而如是大錯, 惶恐死罪, 恭俟誅罰是乎玆…”

69)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02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本府在兩南要衝之處. 又是必爭之地, 賊徒之四面屯聚者, 又如是甚多. … 蛟龍山城, 城堞頽圯, 且無守直軍兵許多, 軍糧, 軍器所在之處, 不可無備. 故調發境內僧軍, 且定將校二三人, 城堞頽圯處, 伐木作柵, 募軍堅守, 爲本城犄角之計是乎玆…”

70)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01쪽. 영조 4년 3월 26일 전라감사 정사효 장계. “…而求禮附近是在谷城兵, 自左營, 昨日徵赴是遣, 玉果兵又爲徵發. 今日玉果兵, 到本府城下是去乙. 府使欲玉果領兵將, 姑爲留屯城下, 以求禮可憂之端, 論報營門及左營, 而還送玉果軍, 以爲求禮路防守之計矣…”

71)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5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安陰之賊, 若欲作亂湖南, 則當從雲峰來. 而安陰, 雲峰之間, 有所謂八嶺時, 嶺路絕險, 號稱一夫當關, 萬夫莫開之地. 此則雲峰左營, 猶可以防守是白乎矣…”

72) 『무신별등록』 권2, 『각사등록』 67, 459쪽. 영조 4년 3월 26일 남원부사 김유 장계. “…竊伏念, 若或見欺於賊兵踰嶺之虛聲, 都聚各邑軍兵於八嶺是白如可, 賊倘從求禮來出其後, 則不但八嶺失守, 臣府亦不得守矣. 其在慎戎機之道, 固當堅守八嶺, 分兵守求禮路, 以備不虞是白遣. 況臣所守之城, 實是三南要害之地…”

우선 영장과 수령 사이의 지휘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즉, 영장이 수령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고 해도 남원부사 김유의 사례에서 보듯 조정의 명령이 없었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 있었다. 게다가 설령 바로 소집에 응한다고 해도 병력이 집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쉽게 단축할 수가 없었다. 앞서 사례에서 보면 21일에 반란을 인지하고도 23일에 처음 소수의 병력만으로 팔량치로 이동했고, 24일까지도 모인 병력은 10여 초에 불과했다. 이후 27일에서야 겨우 병력의 집결이 완료되었는데, 이는 반란군이 팔량치 인근 함양을 점령하기 하루 전이었다. 또한 27일까지 팔량치에 집결한 병력은 18초로, 운봉 좌영장이 소집할 수 있는 명목상의 최대 병력 규모인 5,000여 명의 2/3에 불과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를 평가하자면, 첫째, 납포군화의 진행으로 속오군 중심의 지방군 동원 체계가 이미 상당 부분 무너져 있었다. 둘째, 지휘체계의 혼선과 군사동원의 문제를 지방관 개인 역량으로 떠안는 체계였다. 즉, 그나마 반란군보다 주요 고지를 먼저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반란군이 민간인들로 조직되어 있어 전체적인 숙련도와 군사역량이 부족했던 반면, 일부 전라도 지방관, 특히 운봉현감 겸 좌영장 손명대가 적극적으로 활약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라도 지역의 군사 대응체계는 반란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습적으로 침공하는 외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평할 수 있다.

다만 사료상의 한계로 전라감영의 아병이나 전라병영의 친병을 비롯한 전라도 지역 지방군 전체의 병력 동원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경상도나 충청도 지역의 대응 양상과 비교하지 못해, 전라도 지역 대응체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해도 본 연구는 전라도 지역의 반란 대응체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무신란이라는 실

제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운용을 살핀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원고투고일 : 2019. 1. 6, 심사수정일 : 2019. 2. 1, 게재확정일 : 2019. 2. 14)

주제어 : 무신란, 영조, 대응체계, 군사제도, 지방제도, 지휘체계, 병력동원, 손명대, 팔량치

<참 고 문 헌>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사변일기(事變日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무신별등록(英祖戊申別騰錄)』 1~5, 『각사등록(各司騰錄)』 67~69, 국사편찬위원회, 1993
『완영병제총록(完營兵制總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고정훈 저, 김동수 교감·역주, 『호남절의록』, 경인문화사, 2010
고정훈,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호남임진왜란사료집』 4, 전라남도, 1990
변주승 역주, 『추안급국안』 41~47권, 흐름, 2014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무신란과 모반사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고수연, 『1728년 무신란과 청주지역 사족동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문경득, 『전라도 지역 무신란(戊申亂) 연구』, 전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연구 -영장제를 중심으로-』, 혜안, 1999
송양섭, 『지방군의 개편과 지역방어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 8, 육군군사연구소, 2012
유동호, 『조선후기 지방군제의 변화와 하삼도 병영 운영』,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이영춘, 『정치적 변란인가 민중의 반란인가 - 영조 무신란』,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조선시대의 민란과 변란들』, 가람기획, 2000
이우성, 『지방토호 대 중앙권력층의 투쟁』, 『경상남도지』 상, 1959
이종범, 『1728년 ‘무신란’의 성격』, 『조선후기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이종범, 『3. 여러 지역의 항쟁과 ‘무신란』, 『한국사』 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이희권, 『조선후기 수령의 통치행정기능』, 『조선후기 지방통치행정 연구』, 집문당, 1999
장필기, 『영조 대의 무신란-탕평의 길을 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정석중, 『영조 무신란의 진행과 그 성격』,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1995

- 조준호,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 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 출판부, 1977
- 고수연, 「1728년 호남 무신란의 전개양상과 반란군의 성격」, 『역사와 담론』 60, 2011 (UCI : G704-001545.2011..60.005)
- 고수연, 「조선 영조대 무신란의 실패 원인」, 『한국사연구』 170, 2015 (UCI : G704-000361.2015..170.012)
- 고수연, 「청주지역 영조 무신란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42, 2007 (UCI : G704-000303.2007..42.002)
- 김동수, 「호남절의록의 사료가치 검토(1)」, 『역사학연구』 44, 호남사학회, 2011 (UCI : G704-001257.2011..44.001)
- 문경득, 「무신란(戊申亂) 당시 남원·태인 지역 반란군의 입실 집결과 특징」, 『전북사학』 52, 2018 (DOI : 10.28975/jha.2018.03.52.163)
- 송양섭, 「조선 후기 강진병영의 지휘체제와 군수조달」, 『역사학연구』 52, 2013 (UCI : G704-001257.2013..52.002)
- 오갑균, 「영조 무신란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 21, 1977
- 유동호·이석린, 「조선 후기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와 군병조직」, 『군사』 93, 2014 (DOI : 10.29212/mh.2014..93.191)(UCI : G704-001528.2014..93.004)
- 유승주, 「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研究(下) -三南月課火藥契人の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 『역사학보』 79, 1978
- 유환선, 「영조 4년 戊申亂과 전라도 의병」, 『전북사학』 39, 2011 (UCI : G704-002047.2011..39.010)
- 이근호, 「영조대 무신란 이후 경상감사의 수습책」, 『영남학』 17, 2010 (UCI : G704-002018.2010..17.001)
- 이상옥, 「영조 무신란의 연구」, 『우석사학』 2, 1969
- 이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UCI : G704-000690.2011..42.007)
- 이원균, 「영조 무신란에 대하여-영남의 정희량 난을 중심으로-」, 『백대사학』 2, 1971
-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 31, 1986
- 허태용, 「1728년 무신란의 진압과 『감란록』의 편찬」, 『한국사연구』 166, 2014 (UCI : G704-000361.2014..166.007)

<Abstract>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and Its Operation in Jeolla province

—Focusing on the defense against rebel forces in Gyeongsang province during the rebellion in the year of Musin—

Mun, Gyeong-de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mand system and mobilization patterns of the local forces in Jeolla province with the activities to defend the Gyeongsang rebel forces' advance to Jeolla Province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military system. For this purpose, I searched the studies about the local systems and military ones to review the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in Jella province. And then, using "the official document file of the Musin Rebellion(『戊申別膽錄』)", which included the reports from local governors during Musin rebellion, I could confirm how the local governors responded to the rebel forces from Gyeongsang under the military system at that time.

In the beginning of 18th century, the command system of regional military consisted of provincial governor(監司),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兵使), local divisional commander(營將), and district magistrate(守令) in order. In addition, the troops that could be mobilized in the Jeolla province were the ivory soldiers(牙兵) of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監營), the personal troops(親兵) of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headquarters(兵營) and the regimental troops(束伍軍) in local divisional commander's garrison(鎮營). But as the cases of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 were spreaded out at that time,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number of soldiers to have been mobilized from the headquarters of the provincial governor(監營)

and the provincial military commander's headquarter. However, the maximum troops that could be nominally mobilized by the local divisional commander of Unbong(雲峯) included around 5,000 people, 2 companies of horsemen, 34 companies of infantry and so on.

The news that the rebellion occurred in Chongju(淸州) on March 15 was delivered to Jeolla province on the evening of 18th. In response to this, Jeolla province mobilized military forces. In the middle of it, the news that the rebellion in Gyeongsang Province occurred on 20th was delivered to Jeolla Province on the 21st. From the moment, Son Myeongdae(孫命大), county magistrate of Ungong and local divisional commander, made a reconnaissance to confirm the rebellion and urgently mobilized the troops to defend the Hill of Pallyang(八良峙), a very important strategic point.

However, Kim Yu(金濰), district magistrate of Namwon(南原) refused because there was no official order by royal court, and it was not until he received the order of provincial governor that he supported soldiers. What's worse, it was not easy to gather soldiers quickly, so that only 50% of their troops were gathered on the 27th. The next day, on the 28th, the rebel occupied Hamyang(咸陽), nearby area, and proceeded to the Hill of Pallyang. But the rebels retreated at dawn on the 30th after the provincial troops preoccupied the highlands first.

After examining the response system to rebellion and the mobilization of troops, it is certain that there was a problem in the commander's capacity due to the confusion of the command system resulting from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system, and the military command of the non-specialist. Also, the troops couldn't be quickly mobilized, and the mobilized troops were only 2/3 against the nominal number. This shows that the regional response system to the rebellion had already been largely collapsed, and that the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problems had to be supplemented by individual capabilities.

Key words : Musin Rebellion(戊申亂), Yeongjo(英祖), response system, military system, local system, command system, troop mobilization, Son Myoengdae(孫命大), Hill of Pallyang(八良峙)